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의식의 매개효과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강 예 모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의식의 매개효과 -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강 예 모

인 준 서

강예모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 및 사회불안의 관계를 자의식이 매개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 326명이었으며,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 접촉경계진단 검사(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상관분석과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자기애에는 사회불안, 자의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자의식이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자의식을 유발하고, 증가된 자의식은 다시 역기능적인 사회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자의식과 사회불안, 나아가 정신 병리의 관계에 있어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내현적자기애, 사회불안, 자의식,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

II. 이론적 배경

1.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4
1) 사회불안	4
2) 내현적 자기애	6
3)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11
2.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	14
1) 자의식	14
2) 내현적 자기애와 자의식의 관계	17
3)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	19

III. 연구 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22
2. 연구문제	23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4
2. 측정도구	25
3. 자료분석	28

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29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30
3. 구조방정식 모형	32

VI. 논의 및 제언

.....	37
-------	----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2> 사회불안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 3>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 4> 주요 변인 기술통계	29
<표. 5>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31
<표. 6> 자의식 매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34
<표. 7> 경쟁모형 경로검증 결과	34
<표. 8>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효과	3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22
<그림. 2> 경쟁모형	23
<그림. 3> 내현적 자기애, 자의식, 사회불안의 완전매개모형	3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핵심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다.

최근의 역학연구에서 보고 된 사회불안 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남성의 경우 11.1%, 여성의 경우 15.5%로 주요우울장애(17.1%)와 알코올 의존(14.1%)에 뒤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chen, & Kendler, 1994)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보고한 10년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처음 내원한 환자 중 사회불안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4.5%로 나와 적지 않은 수가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사회불안 장애의 최초 발병 시기는 대개 11.3-12.3세 사이로 알려져 있고(Last, Perrin, Hersen, & Kazdin, 1996) Otto 등(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장애 환자의 80%가 18세 이전에 사회불안증상이 발병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성인기 사회불안 장애 환자들이 아동기 혹은 사춘기 시절 사회적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불안감을 느꼈던 경험들을 회상하였다(Clark, 2001).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사회불안 장애의 발병 연령은 평균 19.5세로 나타났는데, 17-19세까지가 32%로 가장 많았고, 14-16세까지가 21.7%를 차지하여 10대 후반에서 사회불안 장애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형 등, 1994).

이처럼 사회불안 장애는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일생 동안 지속되는 만성적 경과를 밝게 되는 것(Kessler, Foster, Saunders, & Stang, 1995; Weiller, Bissierbe, Boyer, Lepine, & Lecrubier, 1996)으로 알려져 있어서 청소년기는 사회불안 장애의 발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인지적 성숙과 함께 자신의 행동이나 외모가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됨을 인식하게 되고(Crozier & Burnham, 1990), 학급에서 질문에 답하거나 발표하고 시험, 운동이나 음악 연주 등을 통해서 자신의 수행이 평가받게 되는 상황에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일반 청소년들도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Ameis, Gelder, & Shaw, 1983).

더욱이 사회불안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Alloy et al., 1990) 사회불안이 학교거부증이나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Beidel, 1991).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이 높거나 사회불안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및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학업 수행이나 또래관계 등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문혜신, 2001; Beidel, Turner, & Morris, 1999; Rapee, 1995)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효과적인 개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발생 기제를 명확히 하여 임상장면에서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적응 귀인양식, 자동적 사고, 부정적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등 주로 사회불안의 인지적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으며(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a, 1995b; 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에 과민한 것은 남들에 비해 잘나고 싶고,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다는 웅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뿌리 깊게 자기잡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이렇듯 자기애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할 때 매우 심한 불안을 느끼고 또다시 자신의 완벽함과 유능함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평가 민감성과 취약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 여러 연구들은(Schurman, 2000; 신현민, 2009; 윤성민, 신희천, 2007; 이인숙, 2002; 장건희, 2007; 한혜림, 200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장애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유발함에 있어서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인 민감성과 취약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사회불안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그 매개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임상장면에서 치료적 개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을 매개할 것으로 추론되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 자의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매개변인으로서 자의식을 설정한 이유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보이는 자기몰입적 특징과 자기중심적인 지각(Bower, 1997; Emmons, 1987; Raskin & Shaw, 1988)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게슈탈트 치료 이론에서도 자의식이란 충족되지 않은 자기애적 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김정규, 2000)이라고 보아 이들 간의 관

련성을 지지하고 있다.

자의식(self-consciousness)은 자신의 감정과 사고 등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성향으로, 사회불안의 인지적 특성으로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은 자의식과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Fenigstein, 1979; Hope, Heimberg, 1988; Monfries, Kanfer, 1994; 김남재, 1997; 이혜민, 1999;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Wells, 1995; Carver & Scheier, 1978; Mansell, Clark, & Ehlers, 2003; Woody, 1996).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자의식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변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변인들 간의 관계, 특히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의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있어서 내현적 자기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자의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임상장면에서 이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1.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

1) 사회불안

사회불안의 임상적 현상인 사회불안 장애는 ‘낮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많은 경우 사회불안 장애와 사회불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불안 장애는 DSM-IV의 기준에 근거한 진단명이다. 반면, Schlenker 와 Leary(1982)는 사회 불안을 사회공포증 보다 더 광범위한 정의로 '실제 또는 상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적 평가가 실재하거나 예상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사회적 상황이란 대화에 참여하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경우처럼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지속시간이 짧고 생활을 방해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다. 즉 사회불안이 심해지고 더 자주, 더 많은 상황에서 불안이 경험되면 사회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다(Devra A. Hope, Richard G, Heimberg, Harlan R, Juster, Cynthia L. Turk,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불안’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임상적 수준의 장애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정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불안을 일컫는 것이다.

사람들의 주의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 긴장감

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보편적인 경험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은 대인관계나 과제수행에 있어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끼고 회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발달 중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사회불안은 사회적 회피와 위축을 통해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장기적인 적응에 심각한 저해요인(Albano, Chorpita, & Barlow, 1996; Kessler et al., 1994; Last, Perrin, Herson & Kazdin, 1992; Rapee, 1995)이 된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평균 12-13세 경인 청소년기 초기에 발병된다고 보고되었으며(Strauss & Last, 1993) 전반적으로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과민한 경향을 보이고 고독감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Beidel, Turner, & Morris, 1999), 등교거부, 우울증, 신체화 장애, 약물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Essau, Conradt, & Peterman, 1999; Last et al., 1992).

또한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성숙으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상상청중'으로 불리는 청소년기 자기중심성이 발달한다. 더욱이 수행을 통해 평가 받는 사회적 상황이 증가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래관계나 사회적 관계로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Amies, Gelder & Shaw, 1983).

이렇듯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자 과도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시기 발달적 특성과 사회불안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2) 내현적 자기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태도가 광범위하게 왜곡된 장애로, DSM-IV(1994)에서는 ‘공상이나 행동에서의 과장성, 칭찬에 대한 욕구, 감정 이입의 결여 등의 광범위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기애는 오랫동안 학문적으로 개념화되기 보다는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은유적으로 쓰여 왔다. 심리학 문헌에서 자기애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98년 H. Ellis에 의해서인데, 그는 ‘성적인 감정이 상실되고 거의 전적으로 자기 찬미에 몰입하는 경향’을 Narcissus-like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였다. 이듬해 Nake가 독일에서 Ellis의 논문을 요약 소개하였고 이를 보게 된 Freud는 곧 자기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Raskin & Terry, 1988에서 재인용). Freud(1918)는 On Narcissism에서 자기애를 ‘자신에 대한 리비도의 투입’이라고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도입하였고(Joseph, Ethel, & Peter, 1991) 이때부터 자기애는 Freud의 임상적 사고에서 중요한 구성 개념이 되어 지금까지도 임상장면이나 성격 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정남운, 2002).

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면서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수많은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기애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았다. 자기애적 현상의 범위와 양상, 기저의 심리적 기제, 발달과정 등에 대해 이론가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포괄하는 자기애적 현상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박세란, 2004). 따라서 자기애를 연구함에 있어 각 이론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미라, 2010).

정신분석적 이론에서 Freud(1914)는 자기애를 두 가지 형태 즉, 일차적 자기애와 이차적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기애를 미분화된 심적 에너지가 자아에 부착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 상태를 ‘일차적인 자기애’(primary narcissism)라고 하였다. 일차적 자기애는 유아가 경험하는 정상적인 상태로서, 양육자의 애정과 보살핌 속에서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이 에너지의 일부는 대상에게 부착되었다가 다시 자아로 돌아오는데 이 상태를 ‘이차적 자기애’ (secondary narcissism)라고 한다. 이때 유아는 자신과 외부 세계를 점차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면서 대상애(object-love)를 형성한다. 즉, 이차적 자기애를 통해 유아는 타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상호적인 성숙한 자기애를 발달시킨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차적 자기애에 고착되어 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집중될 때 이를 병리적 자기애라고 한다. 즉, Freud는 자기애적 성격을 정상적인 발달의 최고 단계인 대상애를 발달시키지 못하는 성격장애로 보았고(이만홍, 1988) 자기애에 대한 특징을 자기 사랑과 자기 과 대화와 같은 태도, 자존감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대 망상이나 이상화 같은 방어성, 자기 충분성과 완벽함에 대한 추구,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향 등으로 설명하였다(이세연, 2008에서 재인용).

또한 Kernberg(1975)는 어린아이가 주양육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냉정하고 애정 결핍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자기애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사랑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 아이는 자신의 분노를 부모에게 투사하여 부모를 훨씬 더 가학적이고 박탈적인 존재로 지각하게 된다. 이때 아이의 유일한 방어는 부모가 가치를 두는 자신의 측면을 찾는 것이고 여기서 웅대한 자기상(grandiose self-image)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측면들, 자신의 좌절을 보상해주고 분노와 질투의 감정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

해 상상해 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신을 사랑해주는 따뜻한 양육자의 모습, 이 세 가지가 융해(fusion)되어 만들어진다. Kernberg(1975)는 자기에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자신에게 몰입하고, 야심이 강하며, 과대 망상적인 공상을 하고,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완벽한 지혜와 권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큰 관심을 쏟았다(정남운 2001에서 재인용).

한편 Kohut(1977)은 자기에의 병리적인 성향을 강조한 Freud(1953), Kernberg(1975)와는 달리 자기에를 발달상의 병리적 이탈로 보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정상적 발달과정을 거치는 리비도의 한 형태로 보았다. Kohut(1971)의 자기심리학에서는, 유아가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고자 거대한 자기상과 이상화된 부모상에 집착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에의 영역과 대상의 영역 모두에서 발달이 지속된다는 이른바 두 축 이론(double axis image)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서 두 가지 축은 '웅대한 자기'(grandiose self)와 '이상화된 부모상'(idealized parental image)으로, 대략 5~7세경에 이 두 축이 합쳐져 통합된 자기를 형성한다. 이때 아이의 욕구에 대해 부모가 적당한 공감과 양육을 하고, 시기적절한 공감 실패와 좌절을 제공하면 적절히 '이상화된 부모상'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의 초자아가 융통성 있게 기능하도록 해주고 목표와 이상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또한 '적절하게 좌절된 거대자기'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야망으로 이어져 삶을 살아갈 에너지로 역할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이상화 모델이 되지 못하는 고착상태가 되면 아동은 이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대상(self-object)을 찾는다. 그러므로써 주변 사람들을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기에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하였다(정미라, 2010).

자기에에 대한 경험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서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DSM-IV에 나타나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준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2) 끝이 없는 성공에 대한 공상과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사로잡힌다. (3)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고,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혹은 기관)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4)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5) 특권의식을 가진다. (6)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7)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타인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8) 자주 타인들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9)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정미라, 2010에서 재인용).

DSM-IV에 제시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Kernberg(1975)가 기술한 특성에 따라 공격적이고, 외향화된 측면을 주로 강조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이론가 및 연구자들은 웅대한 자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표현 양상이 판이하게 다른 또 다른 유형의 자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Akhtar & Thonsonm, 1982; Cooper, 1981; Gabbard, 2002; Gersten, 1991; Kohut, 1971; Wink, 1996). 여러 학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두 유형의 자기를 구분해 왔으나, 이 중 외현적 자기와 내현적 자기로 구분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Kohut, 1971) 이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또한 내현적 자기와 기존의 자기에적 척도들 사이의 낮은 상관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를 통해서 내현적 자기와 외현적 자기의 구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Emmons, 1987; Mullins & Kopelman, 1988; Watson,

Grisham, Trotter & Biderman, 1984). Emmons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DSM-III(APA, 1980)를 근거로 만들어진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요인 분석하여 얻어 낸 자기에 척도 요인인 지도력/권위, 자기몰입/자기감찰, 우월성/거만함, 착취성/특권의식의 4개 중 착취성/특권의식만을 제외하고 MMPI의 5번, 0번 척도에서 추출한 자기에 척도들과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음이 관찰되어 자기에가 외현적 측면 이외의 다른 성향, 즉 내현적 측면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Wink(1991) 역시 MMPI에서 추출한 6개의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웅대성/과시성 요인과 과민성/취약성 요인이 존재함을 밝혀냈다(박세란, 2005).

한편 Cooper(2000)는 두 자기에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Cooper(2000)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적극적으로 타인의 찬사를 요구하고 웅대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지만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한다고 한다(권은미, 2006 재인용).

이처럼 외현적 자기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핵심 특징으로 갖는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다. 둘째, 억제적이고 수줍어하며 심지어 자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셋째,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주의를 기울인다. 넷째, 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한다. 다섯째, 경멸이나 비난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섯째, 쉽게 감정에 상처를 입는다(권석만, 한수정, 2000).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연구들은 병리의 정도에 있어서는 내현적자기에가

외현적자기애 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신희천, 2007에서 재인용).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Raskin과 Novacek(1989)은 외현적 자기애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경험-추구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리더쉽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Rose(2002)는 외현적자기애 유형이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정성을 지닌 내현적자기애 유형은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안녕감 및 개인적 적응에서 결손(Wink, 1991), 우울 및 낮은 자존감(Watson, Taylor, & Morris, 1987), 성인기 애착 불안(Smolewska & Dion, 2005), 그리고 혼란된 대상관계 및 피확성(Hibbard, 1992)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회피 및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며(권은미, 2006; 한혜림, 2003), 수치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이인숙, 2005; 한혜림, 2003) 보고되었다.

이렇듯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우울하고 불안하며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 받는 등의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부적응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이 더 클 것이다(정남운, 신동주, 2007). 따라서 이들을 임상 장면에서 접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두 유형 중에서 내현적 자기애에 초점을 맞추었다.

3)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임상적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소심하며, 수줍어하고, 위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사회불안의 증상과 많은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Cooper, 2000).

Kohut(1971)은 자기에적인 사람들이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자기에적인 사람들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현적인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혹은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방어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늘 과민한 모습을 나타내며,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회피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남운,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평가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높은 불안을 경험할 것으로 추론된다(윤성민, 신희천, 2007). 더욱이 이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자기에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Cooper, 1998; Gabbard, 1998; Gersten, 1991; Kraus & Reynolds, 2001; Wink, 1991).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도 여러 연구들에서 증명되어 왔다(Schurman, 2000; 신현민, 2009; 윤성민, 신희천, 2007; 이인숙, 2002; 장건희, 2007; 한혜림, 2004). 예컨대, Schurman(2000)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와 대인불안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으며, 이인숙(2002)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에는 사회불안의 한 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한혜림(2004)의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는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로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박동숙(2004)은 내현적 자기에가 불안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으로 발전될 수 있는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애는 생애초기에 발달하는 성격특질이고 여러 이론가들은 자기애적 성격이 초기 양육 환경의 실수에서 온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Freud, 1914; Kernberg, 1971; Kohut, 1971; Millon, 1996). 반면, 사회불안 장애는 일종의 증상 변인으로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기 양육환경으로 인해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을 가지게 된 아동이 발달 과정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여 사회불안 장애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Smolewska와 Dion(2005)은 내현적 자기애가 성인기 애착에 있어 개인차, 특히 불안 애착을 가늠하는데 예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애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보다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혀냈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이제까지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은 부적응 귀인양식, 자동적 사고, 부정적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등 주로 사회불안의 인지적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으며(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a, 1995b; 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에 과민한 것은 남들에 비해 잘나고 싶고,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다는 웅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뿌리깊게 자기잡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불안의 성격적 특성인 자기애적 욕구에 주목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

1) 자의식

자의식(self-consciousness)은 자신의 감정과 사고 등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는 거울이나 관찰자와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도되거나 이러한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게 주의를 자기 안으로 두는 일관적인 개인의 기질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혹은 이 둘 모두의 결과로서 일어날 수도 있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자의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형은 Duval과 Wicklund(1972)의 객관적 자기자각이론(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이다. Duval과 Wicklund(1972)의 객관적 자기자각 이론에 따르면 자기자각 상태란 개인의 주의의 초점이 자아에 맞춰진 상태로,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 행동 등에 집중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자각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평가과정을 촉발시키게 되어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와 현재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에 비해 현재 상태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 비난과 우울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은 부정적인 차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거나 혹은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자기 자각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김은혜, 2009 재인용).

Fenigstein 등(1975)은 이러한 객관적 자기자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주의의 초점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자아에 두는 기질적 성향에서의 개인차가 개인의 행동과 태도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기자각의 지속적 성향에 대한 측정 방법인 자의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의식은 사적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 공적자

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그리고 사회불안(social anxiety)의 세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Fenigstein et al., 1975; Carver & Glass, 1976; Turner et al., 1978).

사적 자의식은 개인의 내적 사고와 감정, 동기와 같은 내부적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자아의 은밀한 측면, 예를 들어 태도,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측면을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개인의 성향이다(Fenigstein, 1975). 즉, 내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동기와 관련된 자기의 측면들에 주목하는 성향으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적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대인관계 거부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패와 같은 개인적인 맥락에서 내부로 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조아라, 김영미, 2000). 또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이 있고(Scheier, 1980), 자신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지며 판단 시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각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Froming & Caver, 1981).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적 자의식은 우울증(Smith & Greenberg, 1981), 일반화된 불안(Hope & Heimberg 1985)과 정적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과 사적 자의식의 상관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는 상당히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고(김은정, 1993),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과 불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김영아 등, 1999).

이렇듯 사적 자의식은 자기이해를 높여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인문제해결에서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김은정, 1993; 김영아, 문혜신, 김진관, 오경자 1998; 정선영, 1999)을 지니는 동시에 부정적 정서, 내적 귀인양식, 자기비난에 영향을 미쳐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Smith & Greenberg, 1981; Smith, Ingram

& Roth 1985; Ingram, Lumry, Cruet & Sieber, 1987)이 모두 보고되고 있으며 자의식의 하위요인에 따라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목하는 성향이다. 이는 인상형성이나 개인의 외현적 행동방식, 예의 등으로 구성되며, 자기표현 등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안은 공적 자의식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들은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매우 염려스러워한다. 그러나 공적 자의식이 필연적으로 사회불안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도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양은주, 오경자, 1993).

공적 자의식의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표출 방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경향이 높고(Fenigstein, 1979), 사회적인 단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검색하는데 능숙하며, 사회성과 수줍음과도 상관이 있고(Cheek & Buss, 1981), 다른 사람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실제 인상을 더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bey & Tunnell, 1981). 또한 Scheier와 Caver(1977)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거나 덜 극단적으로 표현하므로 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arver와 Ickes(1978)는 공적 자의식이 사교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공적 자의식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김현진, 한종철, 2004에서 재인용).

반면에 Fenigstein 등(1975)에 의하면, 높은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려는 욕구를 증가시켜 대인관계에서 외현적으로는 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자신을 과

도하게 억압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자존감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타인의 거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다 (Fenigstein, 1975). Lyubomirski와 Nolen-Hoekserma(1995)는 자기 초점화된 반복적 생각이 부정적 사고와 대인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더 부정적이고 편향되게 해석하며 미래의 긍정적 사건에 대해 더 비관적이었다. 즉, 공적 자의식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을 항상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통제하고 타인의 반응을 미리 계산하여 어떠한 실패나 좌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한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하게 되지만 이는 자신이 낭패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 타인으로부터의 배척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 행동에 불과하다(김현진, 한종철, 2004).

이와 유사하게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행동은 환경과의 교류를 방해하고 유기체의 자연스런 활동을 제지한다고 보았다.

2) 내현적 자기애와 자의식의 관계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몰입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자의식이 강한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자기애 성향자들이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고(Bower, 1997), 1인칭 단수명사를 유의미하게 더 사용하고 1인칭 복수 명사를 유의미하게 덜 사용하는 경향(Emmons,1987: Raskin & Shaw,1988)에서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인 지각을 볼 때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자의식이 강하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이원희,

안창일, 2005).

또한 공적 자의식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도 여러 연구들에서 증명되어 왔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하다(Fenigstein, 1979)는 것과 더불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거나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Scheier, 1980)는 점,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에 의해 자신이 약하거나 대처 능력이 무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어하려 한다는 점(Innes & Kitto, 1989) 등은 내현적 자기애와 매우 깊은 관련을 보이는 특성이다. 이와 더불어 박혜진(2003)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공적 자의식이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공적 자의식과 관련되는 대인관계 문제인 보복성,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과헌신성, 간섭성(문혜정, 2004)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고 보여진다(김은혜, 2008).

계슈탈트 치료이론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를 의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행동을 통해 표출하지 않고 체지함으로써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자의식이라고 본다. 자의식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 받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만 거부당할까 두려워 행동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의식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애 욕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당황해서 매우 불안해지고 신체적으로 심한 긴장을 느끼게 된다(김정규, 2000).

지금까지 자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불안이나 완벽주의, 우울, 섭식 장애, 대인관계 문제 등과 같은 병리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성격적인 특성인 자기애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많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의식의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이 자기개념들

사이의 안정화 및 자존감의 고양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존감을 조절하려는 일차적인 방략으로서 나타나는 자기에와의 관련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은혜, 2008).

3)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 불안을 설명하는 여러 인지적 모델들은 자기 초점적 주의라는 인지적 특성을 사회불안의 유지와 악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 왔다(Clark & Wells, 1995; Hartman, 1983; Hope, Gansler & Heimberg, 1898; Schlenker & Leary, 1982).

자기 초점적 주의를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이나 외모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주의(Fenigstein, Scheier, & Buss, 1975)로, 자의식 척도의 하위 척도인 사적 자의식 척도를 사용하여 주로 측정되어 왔으며(이지영, 권석만, 2009), 자의식은 이러한 자기초점화주의의 개념을 개인의 특성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Clark과 Wells(1995)의 사회불안 장애의 인지모델에 따르면, 사회불안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에 처하면 자기초점적 주의를 증가하여 생리적 각성과 내부 지각적 정보에 대한 자각이 증가한다고 한다. 즉, 자기초점적 주의를 사회 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며 사회불안의 악순환을 돕는다. 이러한 사회불안과 자기 초점적 주의와의 관련성은 다양한 실험 연구들에서 간접적으로 지지되었다. Duval과 Wicklund(1972)는 카메라로 유도된 자기 초점적 주의를 사회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청중의 존재와 같은 평가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자기초점적 주의를 증가하였고(Carver & Scheier, 1978; Mansell, Clark, & Ehlers, 2003),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초점적 주의를 증가시켰을 때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oody, 1996).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초점화는 그 자체가 정서적 각성 정도를 증가시키며 고도로 각성화 된 자기초점화는 수행의 감소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자기효율성의 감소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지혜, 1991).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영희(1997)의 연구에서 자기주의집중은 시험불안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자의식과 사회불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Hope와 Heimberg(1988)는 임상적 사회불안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Monfries와 Kanfer(1994)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기 의식이 사회불안의 여러 측정치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김남재(1997)는 사회불안과 공적 자의식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의 4%의 변량을 설명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해민(1999)의 연구결과에서 사회불안은 공적 자의식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의 5.2%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슈탈트 치료 이론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불안장애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불안장애의 여러 하위유형들이 각각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동일시하는 파국적 미래의 차이를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제에 의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 환자들은 신체적 위협을, 사회불안 장애 환자들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협을, 스트레스 후 외상장애는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 경험을 반복하는 위협을 파국적으로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김정규, 1995; Polster & Polster, 1973; Serok, 1995; Zinker, 1977).

이러한 현상은 계슈탈트 치료 이론적으로 볼 때 미해결과제(unfinished business) 및 접촉경계혼란(contact boundary)과 관련 있다. 접촉경계 혼란은 모든 정신병리 현상의 원인이며 개체가 접촉경계에서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경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여 환경과의 유기적인 교류접촉이 차단되고 심리적, 생리적 혼란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접촉경계 혼란에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 자의식이 있는데, 이중 자의식이란 개체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간다는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한다는가, 혹은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앞을 지나가야 할 때 등 많은 사람들로 부터 시선을 받는 순간 자의식이 심해지는데 이는 대인 공포증 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들은 타인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소한 자신의 행동이나 신체증상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한다(김정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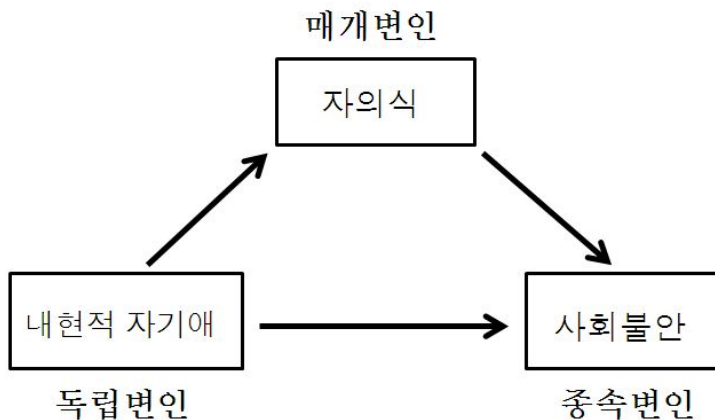
이렇듯 자의식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자의식은 내현적 자기에 및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의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임상장면에서 이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불안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Ⅲ.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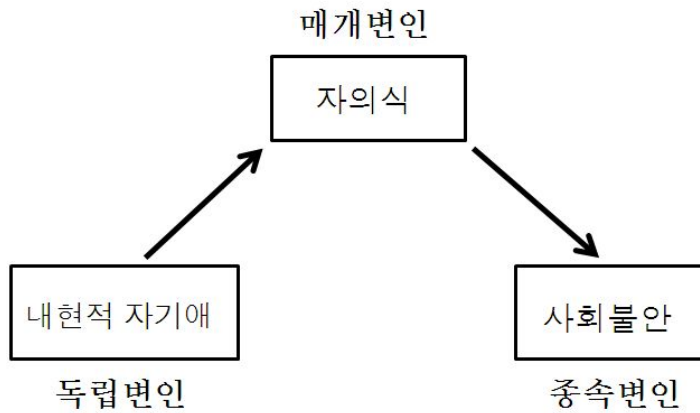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가 사회 불안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내현적자기애, 사회불안, 자의식이 각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왔지만 자의식을 매개로 내현적자기애가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1>과 <그림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 경쟁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그리고 자의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1-1>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내현적 자기애는 자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1-3> 자의식은 사회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이 매개하는가?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360부가 수거되었으나,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326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344)	백분율(%)
성별	남	126	38.7
	여	200	61.3
연령	15 ~ 17세	196	60.1
	18 ~ 19세	130	39.9

2. 측정 도구

1) 사회불안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의 연구에 따라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대인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LaGreca(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에 대한 문항 18개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18-90점의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청소년 수행불안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수행상황을 기술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하여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9-45점의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심함을 의미한다. 김세영(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 .91(대인불안, 수행불안)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과 같다.

<표 2> 사회불안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대인 불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문항)	.94
수행 불안	19, 20, 21, 22, 23, 24, 25, 26, 27 (9문항)	.92
전체	27문항	.96

2)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 범위는 45~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자기애의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 등(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외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의 공통요인과 내현적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 자기환상(9문항)과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이고, 내현적자기애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세란, 2004)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분류한다고 제시한 내현적 자기애 고유 요인만을 사용하였으며,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1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92, .82, .78, .84, .80(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문항)	.88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9문항)	.83
착취 /자기 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문항)	.84
과민/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10문항)	.86
소심/자신감 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문항)	.75
전체	45문항	.93

*는 역채점

3) 자의식

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규(2009)가 개발한 접촉경계진단 검사(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향, 자의식 6개의 하위요인을 6점 척도로 평정하여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위 척도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자의식 하위요인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강진화(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5로 산출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과 AMO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내현적자기애, 자의식,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연구 대상자의 주요 변인 별 기술통계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 기술통계

연구변인	하위척도	측정문항	평정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사회불안	대인불안	18	5	36.37	12.42	18-90
	수행불안	9	5	17.73	7.15	9-45
내현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9	5	24.57	7.50	9-45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9	5	26.47	6.18	9-45
	착취/ 자기중심성	9	5	19.08	6.00	9-45
	과민/취약성	10	5	24.94	7.50	10-50
	소심/ 자신감 부족	8	5	20.58	5.42	8-40
자의식	접촉자의식	10	6	29.46	8.83	10-60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 자의식, 사회불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표4 참고) 모든 변인들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인불안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대인불안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r = .297$),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r = .387$), 착취/자기중심성($r = .403$), 과민/취약성($r = .663$), 소심/자신감 부족($r = .666$)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인불안은 자의식($r = .612$)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의식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둘째, 수행불안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r = .35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r = .251$), 착취/자기중심성($r = .345$), 과민/취약성($r = .506$), 소심/자신감 부족($r = .668$)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수행불안은 자의식($r = .555$)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대인불안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내현적 자기애와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는 자의식($r = .712$)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자의식은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r = .36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r = .499$), 착취/자기중심성($r = .463$), 과민/취약성($r = .687$), 소심/자신감 부족($r = .683$)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자의식, 사회불안(대인불안, 수행불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에 자료가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N=326)

	1	2	3	4	5	6	7	8	9	10
1	1									
2	.646**	1								
3	.628**	.712**	1							
4	.967**	.636**	.612**	1						
5	.896**	.559**	.555**	.754**	1					
6	.339**	.671**	.369**	.297**	.359**	1				
7	.358**	.721**	.499**	.387**	.251**	.224**	1			
8	.406**	.758**	.463**	.403**	.345**	.379**	.498**	1		
9	.643**	.882**	.687**	.663**	.506**	.414**	.667**	.598**	1	
10	.708**	.720**	.683**	.666**	.668**	.413**	.339**	.408**	.618**	1
평균	54.10	115.64	29.46	36.37	17.73	24.57	26.47	19.08	24.94	20.58
표편	18.42	24.57	8.83	12.42	7.15	7.50	6.18	6.00	7.50	5.42

1. 사회불안 총점 2. 내현적 자기에 총점 3. 자의식 총점 4. 대인불안 5. 수행불안 6. 목표불안정 7.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 착취/자기중심성 9. 과민/취약성 10. 소심/자신감 부족

**p<.001

3.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6.0을 통해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1) 자의식 매개모형

(1) 모형 비교와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와 CR(critical ratio)값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확정하는 단일모형 평가방법과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모형을 제시하고 서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가장 해석하기 용이하고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경쟁모형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에 대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쟁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으로 하고,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매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χ^2 검증은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 모형비교를 위한 검증을 하는 것으로, 각 모형들의 자유도와 χ^2 값이 증가 혹은 감소됨에 따른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때 유의도 수준 $\alpha = .05$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이 3.84.이상의 χ^2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 이때 두 모형간의 χ^2 차이가 유의미하면 자유도가 작

은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두 모형의 χ^2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두 모형의 합치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두 모형 간 합치도 차이가 없을 때에는 “간결의 원칙”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이 선호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χ^2 검증을 할 수 있지만 χ^2 은 표본 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이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홍세희(2000)가 제안한 적합도 지수인 GFI,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GFI,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의 값은 괜찮은 적합도, .08~.10 사이일 때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내현적자기애가 자의식의 매개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경로에서 경로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모형 적합도는 $\chi^2 = 204.7$, $p < .01$ 이고, GFI=.870, TLI= .845, CFI=.893, RMSEA=.149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성 기준 수치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측정변인의 오차를 참고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잔차 간 상관관을 연결하였다. 모형의 잔차 간 상관관을 포함시킨 후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한 적합도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CFI, TLI가 .90 이상이고, RMSEA도 .08~.10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적합도 지수상의 차이가 만족할 만큼 크지 않았다. 이에 서로 내포(nested)관계에 있

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차이 규명을 위해, χ^2 값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값은 7.2(df=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자유도 값이 더 작은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의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자의식 매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χ^2	df	G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67.8	18	.956	.940	.970	.092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60.6	17	.962	.945	.974	.089

(2) 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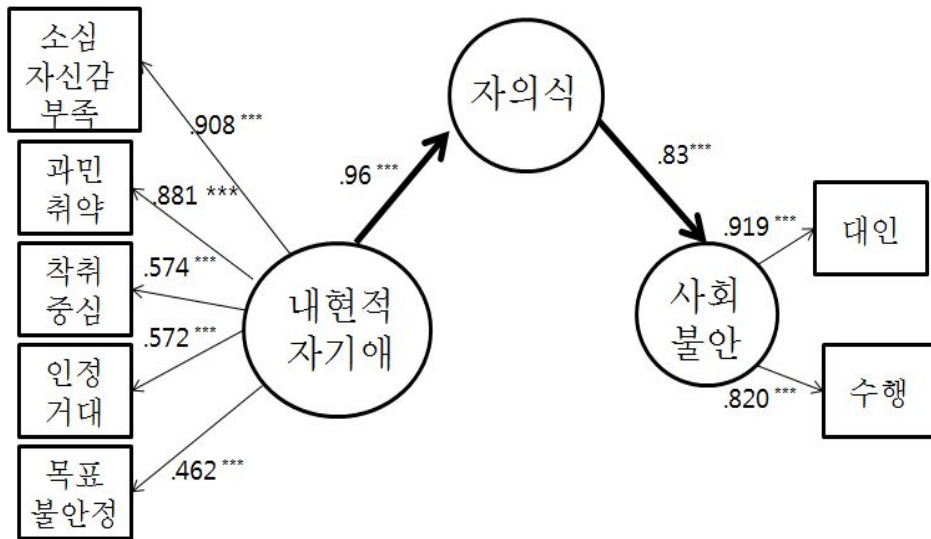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에 대한 경로검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 경쟁모형 경로검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내현적 자기애 → 자의식	1.07	.100	10.690***	.96
자의식 → 사회불안	.78	0.056	13.835***	.83

*** $p < .001$

경쟁모형의 경로검증을 살펴보면, 자의식이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쟁모형 내에서 자의식이 매개역할을 하게 되면, 내현적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간접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모형방법을 통해 더 적합하다고 채택된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이는 내현적자기애와 자의식이 정적관계에 있으며,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즉 대인불안과 수행불안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001

<그림 3> 내현적자기애, 자의식, 사회불안의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

(3)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효과

매개모형에서 예언변인이 결과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예언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바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예언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결과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에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8>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효과

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내현적 자기에 → 자의식	.960	.960	.000
자의식 → 사회불안	.838	.838	.000
내현적 자기에 → 사회불안	.804	.000	.804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에서 자의식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 효과는 .960으로 자의식에 내현적 자기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의식에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 효과는 .838으로, 자의식역시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불안에 대한 내현적자기애의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매개변인인 자의식을 매개로하여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기제로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자의식을 가정했는데, 연구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자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이전에 각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자기애 및 사회불안과 자의식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자의식이 더 높고, 사회불안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높은 불안을 경험할 것으로 추론된다는 윤성민, 신희천(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자기애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Schurman, 2000; 신현민, 2009; 윤성민, 신희천, 2007; 이인숙, 2002; 장건희, 2007; 한혜림, 2004). 그리고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내현적자기애와 자의식이 정적상관을 보인 것은, 내현적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의식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박혜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내현적자기애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를 의식하면서도 이를 행동을 통해 표출하지 않고 제지함으로써 같

등상황에 빠지게 되고 자의식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 받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만 거부당할까 두려워 행동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은 자기에 욕구에 의해 자의식이 발생한다는 이론적 견해(김정규, 2000)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상관분석 결과, 자의식과 사회불안이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자의식이 높을 수록 사회불안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Hope, Heimberg, 1988; Monfries, Kanfer, 1994; Woody, 1996; 김남재, 1997; 이혜민, 1999)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완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의식이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의식을 유발하고, 자의식은 하나의 취약요인으로서 작용하여 역기능적인 사회불안인 대인불안이나 수행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애와 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 비합리적 신념, 자기불일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기제시기대와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한혜림, 2004; 신현민, 2009; 김진영, 2010; 정원자, 2010).

이제까지 자기애와 사회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자기애의 하위유형인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특히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사회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충족되지 않은 자기에 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심리적 기제인 자의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경로를 확인하여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성을 보다 정교화시킴으로써 선행 연구를 확장하고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명료화하고 통합하였다.

즉, 자의식을 매개로 하였을 때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불안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담이나 임상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내담자가 치료현장에 왔을 때 이들의 자기애적 욕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고 임상 현장에서 사회불안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개모형은 내현적 자기애로 인한 사회불안의 치료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내현적 자기애는 성격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치료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자의식은 인지적인 측면으로 개입을 통한 변화가 더 용이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적 변인이 자의식이라는 인지적 변인을 매개로해서 사회불안으로 발전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치료 개입을 제공해 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자의식을 매개로 해서 사회불안장애 발전한다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별 비율이 편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전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측정방법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 기억을 토대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경우,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임상적인 면담을 포함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장기적이고 정교한 종단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자의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자의식이 내현적 자기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둘 간의 관계를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의식이 매개한 것은 내현적 자기에, 사회불안, 자의식의 각 변인들 간에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회불안 집단을 대상으로

역기능적인 자의식을 감소시키는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이들의 사회불안이 유의하게 감소되는지 확인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진화 (2009). **자기제시동기 및 자기제시기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김남재 (1999).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곽진영 (2006). **청소년의 자기에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은미 (2006).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a).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b).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4(2), 465-474.
- 박혜진 (2003). **자기애, 자기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민 (2009)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 변인으로**, 건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신혜진 (2005) 자기 불일치와 목표 성향 및 자기 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왕미란 (1995). **완벽주의, 자의식 및 우울성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성민, 신희천(2007). 내현적 자기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사회공포증에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신의학**, 33(2), 305-312.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원희, 안창일 (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19-36
- 장건희 (2007). **자기애와 자기 불일치 및 사회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인희 (2005).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and boredo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36-140.
-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Freeman.
- Bushman, B., & Baumeister, R. F.(1998). Threatened egotism,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ooper, A.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Ed.), *Disorder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 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Cooper, A. M., & Ronningstam E.(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Review of Psychiatry*. vol. 11. ed A Tasman, MBRiba. Washington,DC/Lond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80–97.

- Davis, C., Claridge, G., & Brewer, H. (1996). The two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dynamics of body 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 (2), 153–166.
- Ellis, H. (1898). Auto-eroticism: A psychological study. *Alienist and Neurologist*, 19, 260–299.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 527–532.
- Gabbard, G. O. (1998).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patients.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Gramzow, R., & Tangney, J. P. (1992). Proneness to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469–376.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Hibbard, S., Bunce, S. C. (1995). Two paradoxes of narcissism.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New York, NY.
- Kernberg, O. F. (1970).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 of narcissistic personal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8, 51–85.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sch, Christopher(1978).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Lewis, H. B. (1987). Shame and narcissitic personality, In D. L. The many faces of shame(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Morrison, A. P.(1983). Shame, the ideal self, and narcissism.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9, 295–318.
- Raskin ,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N.,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 Raskin, R., N., & Terry, H. (1988). 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athvon, N., & Holmstrom, R. W.(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ose(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 Wink, P. (1991a). Self-and object 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 The Mediating Effects Self-Consciousnes

Kang, Ye M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326 high school students in Metropolitan Seoul with Covert Narcissism Scale(CNS),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SAS-A), 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 Data were analyzed by SPSS 17.0 and AMOS 7.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covert narciss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and Self-Consciousness.

Second, the relationship analysi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demonstrated that Self-Consciousness wa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Social Anxiety, Self-Consciousness, Mediating Effect

부 록

부록 1. 사회불안 척도

부록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부록 3. 접촉경계진단 검사

부 록

1.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

※ 다음은 평소 여러분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은 후, 요즘(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모습에 해당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어느 한 문항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잘 아는 사람들과 있어도 수줍음을 탄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걱정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잘 모르는 사람과 있으며 수줍음을 탄다.	①	②	③	④	⑤
7	친구들이 나 몰래 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과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	①	②	③	④	⑤

11	별로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 말을 걸 까봐 겁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뭐라고 말할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할까봐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기가 겁난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에게 뭘 같이 하자고 부탁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학교 연극이나 합창, 노래나 무용 발표회에 참여할 때면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큰소리로 책을 읽어야 할 때면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관심이 나에게 집중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떤 집단이나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발표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5	교단에 나가 반 전체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중 간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3	비판을 받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오면 때때로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①	②	③	④	⑤

	사람이 있다.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 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6	속기보다는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대개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여러 자기 일에 모두 뛰어나길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	①	②	③	④	⑤

	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창피한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혼자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0	요 며칠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기회가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접촉경계진단 검사(Contact-Boundary Disturbance scale)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태도 혹은 행동방식에 관한 질문 들입니다. 누구나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맞고 틀린 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행동에 잘 옮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어떤 일을 할 때 온전히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몰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며,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온전히 만족스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당황해서 불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